

# 장백산천지

제 222 호

2014 년 1 월 13 일

월요일

## 대륙 민중들은 리홍쯔 사부님께서 원단을 즐겁게 보내시길 삼가 축원 드렸다

[밍후이왕] 2014년 신년이 다가 올 즈음하여 중국대륙 파룬궁 수련생들과 진상을 똑똑히 아는 민중들은 분분이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명절축사, 시가, 자체로 제작한 축하카드 등을 밍후이왕에 보내 리홍쯔 사부님께서 원단을 즐겁게 보내시길 삼가 축원 드렸다. 수많은 축사, 카드, 시가로 이대사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달 했는데 아주 사람들을 감동 시켰다.

한 민중은 “나는 파룬궁 진상을 명백히 안후 내심으로부터 파룬궁이 좋다는 것을 믿습니다. 마음속에 선념을 품고 좋은 사람으로 되겠습니다.”고 표시했다. 또 다른 민중은 “새로운 한 해에도 나는 여전히 파룬궁을 지지할 것이며 파룬궁 수련생들을 도울 것입니다. 이대사님의 우리가족에 대한 자비로운 보호에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사천의 젊은 부부는 축복의 카드에 이렇게 글을 올렸다.

“2013년 10월 1일 휴가 때 우리는 차를 몰고 강정(康定)에 유람 갔었는데 그 몇일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한 설산을

지날때는 눈바람이 아주 커서. 산중턱까지 갔을때에는 이미 길은 몽땅 흰눈에 덮여 있었으며 여행을 하던 자가용차들이 겹겹이 걸려서 길이 막혔을 뿐만아니라 어떤 차들은 이미 눈구덩에 빠져 나오지 못했고 차들은 서로 스쳐서 걸키였습니다. 그때 모두들 끝없는 산길을 바라보며 한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우리 차는 일반 소형차여서 미끄럼 방지 장치도 없습니다. 날씨도 곧 어두워 질텐데 만약 이 산을 넘어 가지 못한다면 어쩔수 없이 다른 차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차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이틀날까지 기다려 다시 손쓸수 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真善忍好!)’를 늘 즐겨 외었습니다. 이런정황에 부딪쳐 우리는 더욱 잊지않고 부단히 높은 소리로 외우면서 천천히 운전 해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본래 막혔던 길이 우리차가 들어설때마다 늘 앞길이 열려지곤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외우면서 천천히 앞으로 향했습니



다. 비록 긴시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이 설산을 지나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달할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선생님께 감사드리고 파룬따파에 감사드립니다. 총심으로 이선생님께서 새해에 즐겁게 보내시길 삼가 축원드립니다.◇

## 파룬불법 수련자들의 발자국은 천하에 널리 퍼졌다 인도



인도에서 가장 높은 명예를 받은 해들라바스트(海得拉巴士) 특경들이 연공

[밍후이왕]인도는 석가모니(釋迦牟尼)부처가 불법(佛法)을 전수한 곳이며 옛날부터 불교의 나라라고 불리운다, 그곳의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순박하고 선량하다. 인도 파룬따파학회는 2004년 9월에 인도의 큰 도시-뭉바이(孟買)정부의 인정을 받은 합법단체로 이미 등록이 되어있다. 인도 이 문명 고국은 인구가 세계적으로 2위를 차지하고있으며 ‘쩐싼런(真善忍)’의 법광에 잠겨 있다. 파룬궁을 수련하여 몸과 마음의 정화를 얻은 사람들은 서로서로 전하여 나날이 수련생들이 늘어 가고 있다.



반갈로르(班加罗尔)의 Byreshawara 라는 학교의 교장선생님 Sri Ram Reddy 은 영문으로 번역 된 '전법륜'의 '논어(论语)'를 학교 영어교재의 첫 페이지에 첨

가하였다고 말했다. 이것은 인도에서 처음으로 된 일이다. 이 학교의 학생수는 2천명이 넘는데, 많은 선생님들은 매일 '전법륜'을 학습하고 련공을 하고있다.

[밍후이망 2013 년 12 월 21 일] 2013 년 11 월 13 일, 나는 한 수련생과 같이 농촌에가 진상 전 단지를 배포하다가 진상을 모르는 사람의 고발을 당해 훈춘시 영안 파출소로 납치 당했다. 파출소에서는 몸수색을 하고, 나의 핸드폰, 시계와 6~7 원의 돈마저도 몰수해 갔다. 그때 나의 시계를 수색해 낸 경찰의 눈에서 탐욕의 불빛이 번쩍이었다.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본 나는 아주 괴로웠다.

당시 우리가 화장실로 가려고 해도 그들은 우리가 다른 의도가 있다면서 못 가게 했다. 그와 도리를 말하니 “좀 기다리라”고 하였지만 한 두시간후에도 보내지 않았다. 수련생은 참기 힘들어서 “미안하지만 아직도 못 가게 하면 나는 어쩔수 없이 여기에서 소변을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여기 앞뒤에 카메라가 설치 되어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는가?”고 말했다. 나는 우리가 원해서인가? 당신들이 어쩔 수 없게 굴지 않는가고 말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보내 주지 않아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볼 수 밖에 없었다.

시 국보대대에서 온 채(蔡) 경찰과 다른 한 경찰이 우리를 각기 심사할때 우리는 배합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를公安국에 신고 가서 대문밖에 세웠다가 구류소로 실어갔다.

구류소에서 경찰은 우리를 감시실로 데리고가 검사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속옷까지 벗게 하고 검사한 것이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우리가 납치당해 이런 수모까지 받았다.

2013 년 11 월 19 일 오후, 현지 국보대대는 우리를 병원으로 데리고가서 혈액검사, 심전도, B-스캔 등 건강검진을 하고는 결과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검사전에 내

## 길림성 훈춘시 이희련(李禧)

가 화장실로 가려고 요청 했었는데 검진이 끝난 후에 가라고 했다. 후에 화장실에가 앉았다 일어설때 갑자기 아주 불편해났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쁘면서 어지러워 설수가 없었다. 이때 국보대대 채씨는 “피병을 부리는 거야, 죽지 않는다.”라고 했다. 후에 그들은 책임이 두려워 우리를公安국으로 데리고 온 후 아들한테 나를 데려가라고 통지 했다.

집에 돌아와 3일후 성이 호(胡)인 경찰이 나의 아들한테 전화로 나를 데리고公安국에 와서 수속절차를 밟으라고 했다. 아들은 몸상태가 좋지못하여 갈수 없다고 하자 호씨는 우리 집에까지와서 나의 상태를 보고서야 그냥 가버렸다. 남편과 아들은 나의 신체에 대해 아주 근심하면서 병원으로 가자고 했다. 나는 이런 병은 병원에 가면 만원쯤은 있어야 갈수 있는데 우리 집에 그만한 돈이 어디 있는가고 하니 남편은 괴로워서 줄곳 머리만 저었고, 나는 가지 말자고 했다.

5일 후, 그들이 아들한테 계속 전화 걸기에 나는 아들의 부담을 덜고 또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생각으로 아들의 부추김으로 겨우公安국에 갔다. 그때 호씨와 조선족 경찰이 있었다. 나는 내가 오늘 온 것은 우리의 수련은 잘못이 없고, 우리는 썩싼련을 수련하여 좋은 사람으로 되려 하는데 죄를 졌다고 할수없으며 이렇게 우리를 대하는 당신들이야말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왔다고 말했다. 또 그들에게 진상을 말했으나 듣지않았다. 그사이 국보대대의 사람도 왔다. 채씨는 “자기나 구원하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일이니 상관말라.”고 말했다. 호씨는 “오기까지 했는데 협조나 하라”고 했다. 채씨가 또 “오늘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 박해과정을 자술

협조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몇이서 달려들어 억지로 나를 잡아당기고 들고 하면서 갔는데 복도를 지날때 그들은 나를 콩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려 그만 나의 머리가 바닥에 심하게 부딪치면서 기절하고 말았다. 그들은 나를 꼬집어서 깨어나게 하고는 엘리베이터(电梯)에 태우고 3층 까지 올라 갔는데 오르는중에 감각이 너무나 고통 스러웠다. 한 방에 들어가서 손도장을 찍게 할 때 ‘나는 손도장이나 찍으러 온것이 아니다. 당신들에게 해로우니 찍지 않겠다’고 하자 20 여세의 젊은 경찰들이 강제로 나의 팔을 땅바닥에 눌러 밟은 다음 강제로 손을 당겨 손도장을 찍었다. 그들은 “이렇게 찍어도 되는가?” “그냥 대충이라도 하자”라고 하면서 또 강제로 사진을 찍었다. 나는 이미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또 뭔가를 들고 나의 얼굴을 찍으려고 나의 머리를 들려고 할 때 나는 힘을 다해 숙인 머리를 쳐들어 올리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됐어, 그만하자”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상은 내가 납치된 후 현지 ‘610’, 국보대대, 간수소, 구류소에서 받은 박해 과정이다. 써내는 목적은 사악을 폭로하고 박해를 제지하고 세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대법은 나한테 자비를 가르쳤기에 나는 나를 박해한자도 불쌍하게 본다. 그들은 사악의 사주를 받고 박해에 참여해 스스로 위험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있다. 선과 악에 보응이 있는 것은 천리(天理)이다. 그들도 자신의 도덕과 양심을 바로잡고 하루속히 속죄(贖罪)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광명의 길을 선택하기 바란다.